

'청년 창업인과 쿠팡 청년 CEO 특강' 개최

AI 기반 E커머스 물류 트렌드·생태계 대응 전략 논의... 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기업 네트워킹 기회 제공

전북도민일보, 전북대학교,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전북콘텐츠산업협회, 전북글로벌소셜벤처협회, 전북스타트업연합회는 쿠팡(주)과 함께 1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기인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창업인과 쿠팡(주) 청년 CEO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청년 창업자들과 디지털 물류 및 AI 기반 커머스 분야에서의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국내 최대 유통·물류 버티컬 콘텐츠 멤버십 '커넥터스' 창업자 엄지용 대표이사는 'AI 기반 이커머스 물류 트렌드와 SME(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엄 대표는 AI 기반 기술에 따른 이커머스 물류 산업 변화와 중소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 및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와 박대준 쿠팡 대표, 엄지용 커넥터스 대표는 청년 창업가들과 '즉문즉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커머스 및 물류 분야의 전략과 기술, 창업 환경 전반에 걸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창업과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오늘 이 자리가 청년 창업자들의 성장과 글로벌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

쿠팡과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통해 전북의 창업 생태계를 한층 더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주) 대표는 "쿠팡의 경험과 물류 인프라를 공유해 지역의 벤처·청년 CEO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촉진 캠페인 전개

김관영 지사, 완주 이서 마트 방문해 홍보 활동... 소비쿠폰 신속한 사용 유도·지역경제 회복 앞당기는 효과 등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완주군 이서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소비쿠폰의 조기 사용을 유도해 소비 진작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긴다는 취지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 이서면의 한 마트를 방문하여 소비쿠폰으로 도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 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으로 지역 소비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고, 이는 또 다른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기가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 소비쿠폰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날



19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군 이서면 한 마트를 방문하여 소비쿠폰으로 도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물품들을 구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촉진 캠페인'을 갖고 있다.

21일부터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지역 내 지급 대상 171만6,841명 중 167만5,820명이 받았다. 총지급

액은 3,577억원 중 3,473억원이 지급돼 97.6%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8월 17일 기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경우 2,373억원이 도내 사용되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기원, 고온기 가축 피해 예방 가축 사양 집중관리 당부

올해 6~8월 일 최고기온이 30℃를 넘어가는 날이 54일에 달할 정도로 고온이 지속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에서는 고온기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사양 집중관리를 당부하였다.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음수량은 늘어나지만 사료 섭취량은 줄어든다고 체내 대사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생산성 저하나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한우·젖소 등 반추위를 가진 동물

의 경우, 반추위에 서식하는 풍부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사료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체온이 높아져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고온 스트레스 절감을 위해 지붕에 물을 뿌려주고 안개 분무·송풍팬 등을 함께 활용해 환경온도를 낮추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물통을 자주 청소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사료의 경우, 볶짚보다는 질이 좋은 풀사료를 짧게 썰어 소량씩 자주

급여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 비타민, 미네랄 등을 보충 급여하고 소금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있다.

돼지는 땀샘이 발달하지 않았고 지방층이 두꺼워 체내에서 발생한 열을 효과적으로 체외로 발산하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 개량된 종들의 경우 육량 및 지방층이 더 두꺼워져 열 생산량이 증가하여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고온 절감을 위해, 천장의 단열을 보강하고 지붕에 흰색 도료를 칠하여 복

사열을 차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돈방당 사육두수를 줄여 밀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돼지의 출하나 이동 등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실시하여 외부 고온에 접촉되는 빈도를 낮춰 주면 좋다.

이 외에 고온기 전력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여, 농장 규모별 맞춤형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 상태 및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전선 주변의 먼지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만호 기자

K-치어리더 이다혜 관광홍보대사 위촉

대만 관광객 대상, 전북 관광 홍보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대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치어리더 이다혜를 전북 관광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 전북도립국악원의 환영공연과 함께 열렸으며, 현장에 150여 명의 대만 관광객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주 출신인 이다혜는 현재 대만 프로야구팀 웨이취안 드래곤스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해외 진출 1호 한국 치어리더로서 대만 내에서 높은 인지도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대만 현지 여행사와 협업해 'K-치어리더 이다혜와 떠나는 전북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이다혜는 대만 팬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보며 사진 촬영을 하고, 비빔밥 만들기 체험에도 참여했다. 이어 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는 팬미팅, 1:1 기념사진, 전통놀이 체험, 저녁 식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만호 기자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다혜 씨가 가진 열정과 에너지가 전북 관광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라며, "대만 팬들에게 전북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은 2024년 기준 방문 관광객 수 3위를 기록한 중요한 관광시장으로, 이번 관광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전북 관광 인지도 제고와 대만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2025 을지연습 추진상황 점검

상황보고 회의 개최... 주요 사태별 조치사항 보고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도 상황보고회와 36사단, 전북경찰청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주재로 상황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사작전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경찰작전 추진결과 △도 주요 사태별 조치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어 '대규모 양곡 부족사태 대응방안'을 과제로 관련 실국과 유관기관이 토의 및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 도상연습 토의를 실시하였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 전북은 농생명 산업의 수도이며, 이러한 위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사태 발생시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 사전 대비계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연습간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폭염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연습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천변산책로 범죄취약지역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전북 자경위, 주민 공모 시상식 개최... 최우수상 유준영 씨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9일 도청에서 '전주 천변산책로 범죄취약지역 주민 공모전' (이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경찰청 주관 '2025년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의 일환으로, 심야시간 자율순찰로봇 도입을 앞두고 전주천변 취약구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로봇 순찰노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총 52건의 사진과 영상이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전주 삼천 천변 산책로의 특정 구간을 범죄 취약구역으로 제안한 유준영 씨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구역이 자율순찰로봇 순찰 경로에 반영돼 지역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만호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서경석(1957. 8. 19.생 2025. 5. 20.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병일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5 느단 10364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포기심판 사법보좌관 박병일
- ▶피상속인: 망 서경석(1957. 8. 19.생 2025. 5. 20. 사망) 최후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산로 71, 104동 504호(자곡동, 자곡쌍용예가)
- ▶공고인: 정경희
-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25. 8. 14.
- ▶공고기간: 2025. 8. 18. ~ 2025. 10. 17.
- ▶주소: (청구대리인) 김계수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서로 34, 3층 법무사 김계수 사무소(덕진동 1가)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